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회사와 변호사단체의 역할

박 기 억

변호사(대한변협 사업이사)

I 용어와 관련하여

먼저 오늘 토론회 주제가 된 보험제도의 용어에 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독일은 권리보호 보험(Rechtsschutzversicherung), 미국은 주에 따라 달리 불려지는데 보통 법무비용보험(Legal Expenses Insurance, Legal Protection Insurance) 또는 법률서비스보험(Legal Services Insurance), 일본에서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권리보호보험(權利保護保險)으로 불린다.

그런데 권리보호보험이라는 것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변호사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받음에 있어서 그 서비스비용, 즉 상담비용이나 변호사 수임료를 주된 담보내용으로 하여 이를 보험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법률서비스를 받는 비용을 보험에 든다는 의미에서 법률서비스보험이라는 용어가 본 제도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대한변협 법률서비스보험 도입연구 TF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보험상품을 ‘법률서비스보험’으로 부르기로 용어를 정리한 바 있다.

II 법률담보사항의 제한 및 피해자를 위한 보험상품의 부족

1. 법률서비스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폭넓은 법률담보에 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로서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하여 폭넓게 법률서비스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다양화하고 당해 보험으로 담보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2. 그런데, 발표문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특약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대부분 보험가입자(또는 피보험자)가 ‘가해자’인 경우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AXA다이렉트자

동차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타인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해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변호사 보수, 형사합의 지원금 등의 법률비용을 지원한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도 보험가입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사고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속되거나 검찰공소가 제기된 경우 200만 원을 지급하며, 11대 중과실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3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법률비용을 지급한다고 한다. 에르고다음다이렉트보험회사(‘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 보험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의 드림에르고다음다이렉트나 삼성화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탑운전자보험’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방어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법 제720조 제1항¹⁾에 따라 해당 보험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별도로 변호사 비용을 담보하는 법률서비스보험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즉 상법 제720조 제1항에 규정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21531 판결 등 참조), 다른 보험상품 가입자는 이러한 보험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담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법률서비스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법률서비스보험이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해자 위주로 보험상품을 구성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보험상품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어떤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그러한 피해자가 법률서비스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변호사 비용의 부담없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를 위한 보험상품의 다양화는 법률서비스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피해자를 위한 보험상품의 강화라는 점에서 DAS의 보험상품을 하나의 바람직한 모델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또한 보험담보로부터 배제되는 영역(예컨대, DAS사의 경우 ‘계약관련 분쟁’ 삼성화재 ‘무배당 비용보험’의 경우 지적재산권 분야, 소비자 관련 소송, 노동쟁의 관련 소송 등)이 많은 것도 결코 법률서비스보험이 활성화되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점에서도 소비자의 니즈를 좀 더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발표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1) 상법 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①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금을 청구할 수 있다.

Ⅲ 대한변협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의 활용 방안

1. 국민들이 법률서비스보험에 관심을 갖고 이 보험상품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무엇보다도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을 맡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는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안심하고 법률서비스보험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국선변호인은 성의가 없다거나 실력이 없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인 대신 사선변호인을 선임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바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의 전문성이나 성실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법률서비스보험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률서비스 제공자인 변호사 영역에서 전문성과 성실성을 갖춘 변호사로 하여금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할 것인데, 대한변협이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전문변호사 등록제도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2. 대한변호사협회는 국제화·전문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변호사들 간의 자유경쟁을 통한 전문성을 극대화 하며,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 1.부터 본격적으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분야 등록을 희망하는 변호사는 최대 2개 분야까지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수료 경력, 해당 전문분야에 관한 학위 취득 유무, 해당 전문분야에 관하여 법과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등에서의 강의실적, 해당 전문분야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기업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근무경력, 기타 법조계에서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저명성 유무, 해당 전문분야사건 취급 경력, 관련 판례 평석 및 연구논문 작성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대한변협은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를 두어 전문분야 등록 신청을 한 변호사의 전문성 여부를 심사한 후 변협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데, 2015. 1. 7. 현재 다음과 같이 58개 전문분야에서 총 1223건, 856명의 변호사가 전문분야 등록심사를 통과하여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통하여 그동안 변호사의 전문분야를 참고할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 변호사 선택에 어려움을 겪었던 법률 수요자들에게는 적절한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인데, 법률서비스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대한변협에 등록된 전문변호사의 풀을 이용하여 법률서비스보험 가입자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률서비스 제공자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수

준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의 경우 피보험자에 대한 변호사 소개를 위하여 일본변호사협회가 각 변호사회에 소개창구인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동경해상 등 손해보험사가 일본변호사협회와 협력하여 법률서비스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전문분야별 등록 현황 (총 1223 건, 856 명 등록)] 2014. 1. 7.기준

순번	전문분야		건수	순번	전문분야		건수		
1	민사	민사법	36	27	가사	가사법	102		
2		부동산	139	28		상속	12		
3		건설	116	29		이혼	42		
4		재개발·재건축	20	30		소년법	0		
5		의료	45	31	행정	행정법	46		
6		손해배상	34	32		공정거래	22		
7		교통사고	7	33		방송통신	9		
8		임대차관련법	4	34		헌법재판	7		
9		국가계약	2	35		환경	11		
10		민사집행	4	36		에너지	7		
11		채권추심	7	37		수용 및 보상	9		
12		등기	1	38		식품·의약	3		
13	상사	상사법	14	39	노동	노동법	25		
14		회사법	20	40		산재	4		
15		인수합병	24	41	조세	조세법	65		
16		도산	53	42		법인세	1		
17		증권	16	43		관세	0		
18		금융	42	44		상속증여세	0		
19		보험	28	45		국제조세	0		
20		해상	16	46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법	15		
21		무역	2	47		특허	40		
22		조선	2	48		상표	8		
23		중재	6	49		저작권	26		
24		IT	7	50		영업비밀	2		
25	형사	형사법	74	51	엔터테인먼트		5		
26		군형법	1	52	국제관계법		0		
				53	국제관계	국제거래		17	
				54		국제중재		13	
				55		이주 및 비자		2	
				56		해외투자	(중국) (사우디)		3
57	기타	스포츠	5						
58		종교	2						

IV 맺는 말

법률서비스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와 변호사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보험회사로서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해자’를 위한 보험상품의 다양화는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변호사단체로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문변호사로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소비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보험상품이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에 현재 판매되는 보험상품에서부터 소비자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1. 일 시 : 2015. 1. 20.(화) 14:00 ~ 17:00

2. 주 최 : 대한변호사협회

3. 장 소 :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

4.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4:00	접수 및 개회	
14:00-14:10	개회사 :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인사말 : 강행옥 법률서비스보험 특별위원회 위원장	
14:10-15:10	좌 장 : 장재옥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발표 (각 30분)	유주선 교수(한국보험법학회 총무이사, 강남대) 김한준 부장(DAS법률비용보험 주식회사)
15:10-15:30	휴 식	
15:30-16:30	토 론 (각 15분)	김락현 검사(법무부 법무과 검사)
		김은경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남원식 박사
		박기억 변호사(대한변협 사업이사)
16:30-17:00	플로어 토론	
17:00	폐 회	